

“실기실 못쓰니 수업도 안 돼”…난관 부딪친 비대면 수업

출석, 교강사 숙련도 등
온라인 강의 문제점 지적

박창원 기자 macpark342@knu.ac.kr
이지민 기자 delicado@knu.ac.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진행한 비대면 수업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론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수업 진행을 지적했다. 외국어대학 소속 A씨는 “출석을 부르는 데만 30분 이상 소요됐다”며 “비대면으로 진행해 수업 통제가 안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최현식(원자력공학 2018) 씨는 “실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됐지만 원활하지 못했다”며 “학교가 교강사에게 실시간 비대면 수업 진행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차라리 실시간 수업 대신 강의의 업로드 형식으로 진행하고 클래스를 활용한다면 혼선 없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실기·실습·실험·설계수업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힘든 수업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 소통 문제가 지적됐다.

남효주(미술학부 조소전공 2018) 씨는 “지금은 교수님이 ppt자료에 음성 녹음을 첨부한 강의 자료로 이론수업을 진행한다”며 “비대면 수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학생들이 교수님께 작품 스케치를 보내고 교수님이 피드백을 주시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 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기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다보니 수업 집중도나 긴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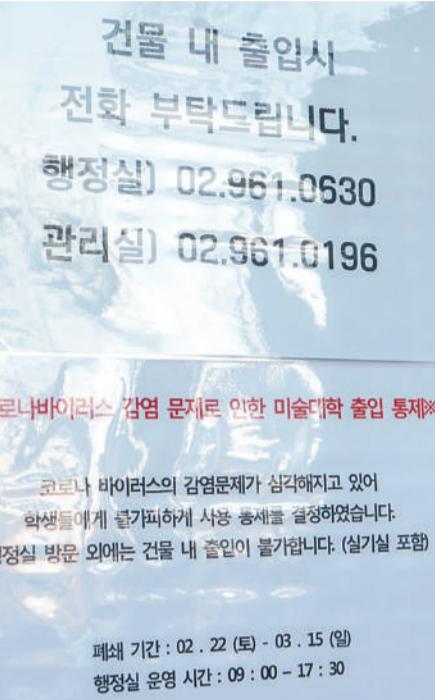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출입이 전면 통제돼 미술대학도 폐쇄된 상태다.

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대면 수업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미술대학 소속 B씨는 “교수님께서 수업에 카카오톡 채팅을 활용한다고 말했지만 아직 채팅방에서 진행된 것은 없다”면서 “실기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기 과목을 어떻게 진행할지 전혀 모르겠고 수업 준비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변에서 휴학을 권한다”면서도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휴학하기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중간 시험과 기말시험 등 시험 평가 방식에서도 정확한 안내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체육 실기수업을 수강하는 체육대학 소속 C씨는 “현재는 영상을 통해 경기 규칙을 숙지하고 있다”며 “하지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출입이 전면 통제돼 미술대학도 폐쇄된 상태다.

만 실기수업은 직접 해보면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한데 비대면으로 진행돼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하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수업이 연장돼 실기가 불가능할 상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공지 받은 바 없어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실습이 필요한 수업도 마찬가지였다. 박진주(한의예 2018) 씨는 “현재는 비대면으로 이론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교수님께서 금요일이나 주말을 이용해 실습 보강을 진행할 것이라 말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수업 2주 연장이 결정된 지금 추가 공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씨는 “비대면 수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해 감수하고 있지만 현 상황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



(사진 = 장보경 기자)

유로 등교를 감행한 경우도 있다. 실험실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생명과학대학 소속 D씨는 “지난 16일부터 학교로 등교해 실험을 진행 중이다”며 “교수님도 걱정이 많으시지만 실험을 진행해야만 하는 수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분들은 실험을 해야 논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등교한다”고 덧붙였다.

미비한 원격 수업 플랫폼은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며 혼선을 빚은 원인 중 하나였다. 김경민 학사지원팀 팀장은 “예정에 없던 온라인 강의가 결정되자마자 급하게 시스코 웹엑스와 구글 클래스룸을 준비했다”며 “생소한 것이다 보니 학생과 교강사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실기·실습·실험·설계수업 강좌에 대해 기존 학사일정을 유지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 바로 대면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부족한 수업시수에 대해서는 필요시 토요일에 보강하되, 각 단과대학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 수업 신규 플랫폼인 ‘이캠퍼스(e-campus)’를 기준 계획보다 앞당겨 이용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캠퍼스는 클래스와 유사하나 부가적 기능이 추가된 형태다. 이캠퍼스에는 실시간 화상강의시스템인 줌(Zoom)이 탑재돼 실시간 강의를 지원하지 않았던 클래스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수업 후 온라인을 통한 추가토론과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아울러 클래스에서는 완전히 구현되지 않았던 모바일 학습 환경과는 다르게 이캠퍼스는 모바일 학습에 최적화한 환경이 구축돼있다. 또, 클래스보다 세부적인 온라인 학습 진도체크와 출결 조회 및 관리가 가능하다.

문제로 지적돼왔던 클래스의 서버 용량을 고려해 이캠퍼스는 외부 클라우드와 회선을 사용해 2천명이 동시에 접속 가능하다. 이캠퍼스는 30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시스코 웹엑스와 구글 클래스룸 역시 계속 이용 가능하다.

학사지원팀 김경민 팀장은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지만 인력 문제 등의 한계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서도 “이해와 배려를 통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잃어버린 봄… 코로나19가 앗아간 새내기들의 낭만

한진석 기자 1_jinseok@knu.ac.kr

“첫 학기를 맞이해 옷도 마련하고,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렜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성지은(간호학 2020) 씨는 학내 커뮤니티 및 선배들의 조언에 따라 여러 행사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잇따른 코로나19 확산에 새내기들을 위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쩔 수 없이 기대를 접어야 했다.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새내기를 맞이하는 행사를 매년 새로운 감동과 축하의 자리가 되어 왔다. 특히 벚꽃 아래 펼쳐지는 우리 대학의 환영 행사는 새내기들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신입생과 선배들이 처음 마주하는 자리인 단과대 ‘새내기 배움터’는 물론, 입학식 역시 취소된 상태다. 만우절마다 교복을 입고 봄을 즐기던 신입생들의 모습도 올해엔 보기 어렵게 됐다.



개강 일정에 맞추어 미리 기숙사에 입사하거나 자취방을 구한 신입생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성 씨는 “처음 공지된 개강일인 3월 13일에 맞추어 학내 기숙사에 입사를 마쳤으나, 온라인 강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 됐다”며 “모든 학생의 입장은 최대한 고려하는 학교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학생들과 빠르게 공유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학내 시설 이용이 대부분 제한되면

서,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연습실과 작업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학내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의 신입생 게시판에는 저렴한 연습실을 구하는 글도 올라왔다. 박재호(기악학 2020) 씨는 “대학 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악기를 연습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없었다”며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빨리 진정되서 선배, 동기들의 연주를 듣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온라인 강의로 첫 학기를 맞이한 신

입생들은 훌로 집에서 수업을 듣는 방식이 낯설기만 하다. 교수님이나 선배들에게 직접 조언을 들거나 동기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소통할 곳도 없다.

안기영(한의예 2020) 씨는 “각 과 별로 수강하는 방식과 출석하는 방식이 달라 혼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았다”면서 “교수님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수업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온라인 강의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다”며 온라인 강의를 접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전했다.

기존 학생들과 대학 역시 새내기들을 대면하지 못해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다. 신입생 관련 행사를 준비해 온 학생들은 당초 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비대면 상황에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하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신입생들에게 배포할 책자를 만들어 동아리와 학교 생활,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책자 제작을 담당한 기획정책국의 차은빈(사학 2019) 씨

는 “신입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해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새내기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다”면서 “상황이 진정되어 대면으로 정보

를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자가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책자 제작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해 수강신청 요령, 기숙사 내 시설 이용 요령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배포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학교内外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을 환영하는 행사가 언제 어떤 형태로 다시 계획될지는 모두 미정인 상태다. 학생지원센터의 송기휴 행정과장은 “입학식과 신입생 환영 행사가 취소되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새내기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사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최대한 그 취지를 살리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자치단체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